

굳게 닫힌 문 여는 우리학교

박서현 기자 parkseohyun@khu.ac.kr
정다연 기자 ekdusgood@khu.ac.kr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지 하면서 우리학교도 폐쇄했던 교내 시설을 개방했다. 건물별로 세부 방역지침도 변경했다. 개방된 교내 시설에는 ▲양 캠퍼스(양캠) 기숙사 ▲양캠 중앙도서관 ▲생활협동조합

(생협) ▲국제캠퍼스(국제캠) 단과대학 편의점 ▲선승관 등이 있다.

서울캠퍼스 행복기숙사와 국제캠 우정원, 제2기숙사는 편의시설을 개방했다. 행복기숙사는 체력단련실과 4·6·10층 휴게실을 개방했다. 행복기숙사 A동 아름원 지상 1층에 있는 편의점과 카페 출입 복도도 임시 개방해 운영하고 있다. 우정원과 제2기숙사는 취식실, 세미나실, 휴게실 등을 다시 열었다. 다만 제2기숙사는 세미나실과 휴게실에서 거리두기를 유지한다.

양캠 중앙도서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중간고사 기간이 맞물리면서 열람실 운영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연장했고, 거리두기 좌석 또한 전면 해제했다.

생협은 청운관 학생식당에서 석식을 재개했고, 스페이스21 간호·이과대학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카페를 개방했다. 석식은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국제캠 단과대학 내 편의점도 다시 운영한다.

선승관 웨이트집은 현재 선수단 외에 사용할 수 없지만, 개방을 논의 중이다. 체육시설운영단은 “환경미화와 시설 정비를 거쳐 6월 중에 정상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선승관에서 진행되는 스포츠 경기 또한 대면 관람이 가능하다.

한편, 대면 수업에서 시행되던 한 칸 띄어 앉기 등도 사라졌다. 마스크 착용 이외에 정해진 방역지침은 없는 상태다.

안전교육 이수증명 오류 많아

한진석 기자 1_jinseok@khu.ac.kr

매 학기 실시하는 연구활동 종사자 법정 교육에서 교육을 수강하지 않아도 이수 증명서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와 비슷한 오류가 3년 넘게 발생하고 있지만 담당 부서는 해당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학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안전법)에 따라 매 학기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 학기당 최소 6과목을 수강하고 평가점수 60점 이상 취득해야 교육수료가 인정되며, 이번 학기에도 규정에 따라 5월 31일까지 해당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교육 대상은 실험 및 실습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활동종사자 전체로, 연구실책임자,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 수료생, 기타연구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연구활동종사자 중 해당 교육을 기간 내에 수강하지 않을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을 미실시한 책임자에게는 연구안전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연구안전법은 정기안전교육이 실시되는 배경으로, 연구실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기안전교육 시스템상에 허점이 있어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교육과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이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상에는 3년 전부터 정기안전교육을 제대로 수강하지 않고 건너뛰는 방법이 공유돼 있었다. 아주 간단한 코드를 활용해 몇 단계만 거치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기에, 많은 수의 학생이 해당 방법을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댓글을 통해 밝히고 있었다. 최근까지도 이와 같은 방법이 커뮤니티에 반복해서 공유돼 있었고, 상당수의 구성원이 정상적인 절차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우리학교에서 해당 시스템의 관리를 맡고 있는 총무관리처 안전팀은 해당 오류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안

전팀 김경현 팀장은 “만일 해당 문제를 인지했다면 초기에 조치했을 것”이라며, “문제를 인지한 즉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 조치를 취했으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오류를 이용해 제대로 수강하지 않은 구성원을 알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기술적으로 해당 오류를 이용한 구성원을 찾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오류를 이용한 구성원에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재수강할 것을 요청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답했다. 학기가 마무리되기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남겨둔 가운데, 안전교육을 수강하지 않은 구성원들이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파악과 조치가 불가능한 것이다.



연구실안전교육 사이트 캡처 (사진=한진석 기자)

도 이에 대한 파악과 조치가 불가능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생 A 씨는 “해당 오류는 학내에서 이미 잘 알려져 있었고, 많은 학생들이 같은 방법을 이용해 이수 처리를 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기안전교육이 사실상 구성원들이 실제 접하는 연구실 환경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접하게 되는 안전사고와도 괴리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 내용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만일 학생들이 자신이 접하는 연구실 환경과 현실적으로 관련이 있고, 안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시간을 낭비하기 싫다는 생각에 교육을 건너뛰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정기안전교육 안내에는 모바일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모바일 안전정보망(<http://msafety.khu.ac.kr/>) 링크가 제시돼 있었으나, 확인 결과 해당 링크로는 로그인 이 되지 않아 안전교육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는 등 정기안전교육 시스템상에는 여러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구성원들이 쉽게 접근하고, 교육에 대한 의지를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과 콘텐츠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2022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 UNESCO 평화교육상 수상 기관
-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 교육 기관
- 유엔평화학 관련 유수의 석학으로 이루어진 교수진 (Thomas Weiss, Ram Cnaan, 오준 등)
- 다양한 장학제도(전액, 성적, 기숙장학 제공)
- 서울캠퍼스와 광릉캠퍼스에서 수업 진행

모 집 과 정	석사과정
모 집 전 공	국제평화, 유엔평화학, 평화안보정책
전 형 방 법	면접
원 서 접 수 기 간	4월 18일 ~ 6월 23일(기간 내 수시모집)
온라인 원서접수	http://gjp.khu.ac.kr 원서지원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함
문 의 처	이메일 gjp@khu.ac.kr 문의전화 031-570-7012~9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KYUNG HEE UNIVERSITY MEDICAL CENTER

경희 동문 및 가족 건강검진 특별우대

확찬검진, 알찬검진 30%우대 적용

기간: 2022년 08월 31일(금)까지
문의: 02-958-8711~13 [동서건강증진센터]
※기타 검진프로그램도 확대 우대율이 적용됩니다.

프로그램	가격	검사항목
확찬검진 60대이상	3,200,000원 → 2,240,000	주요 암의 진단, 뇌혈관질환, 심혈관계질환, 소화기계질환 진단 기본건강검진 + 뇌MRI, 경동맥초음파, 심장초음파, 갑상선초음파, 유방초음파, 부인과초음파, 골밀도검사, 수면위대장내시경, 흉부CT, 복부CT, 심장CT <여성기준>
알찬검진 40대, 50대	2,200,000원 → 1,540,000	주요 암의 진단, 심혈관계질환, 소화기계질환 진단 기본건강검진 + 경동맥초음파, 심장초음파, 갑상선초음파, 유방초음파, 부인과초음파, 골밀도검사, 수면위대장내시경, 흉부CT, 복부CT <여성기준>

경희의료원